

12-42 (통권 제 513호)

2012. 11. 16.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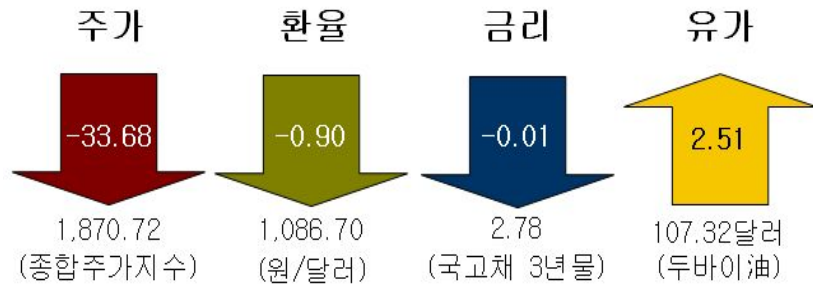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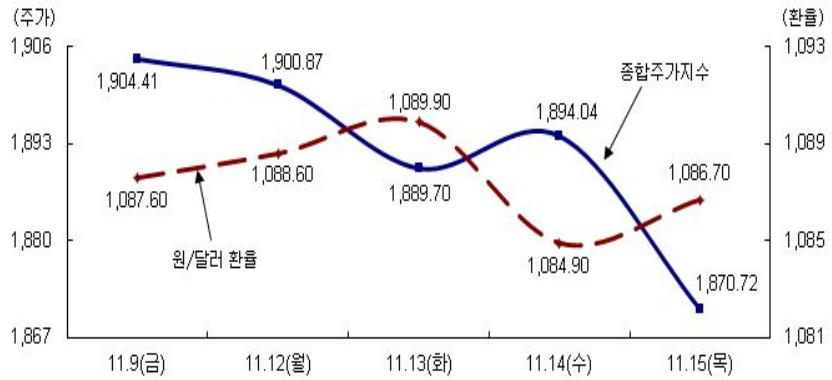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3년 미국 경기 진단
- 하반기, 빠른 회복 기대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11.9~11.15)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3년 미국 경기 진단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9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홍 준 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임 희 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

Executive Summary

□ 2013년 미국 경기 진단 : 하반기, 빠른 회복 기대

■ 미국 경제 지표 혼조세 지속

미국 경제는 2012년에도 뚜렷한 경기 추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였다. 최근 주택과 고용, 소비 지표 등은 개선되고 있으나, 민간투자와 수출 지표는 아직도 부진을 보이고 있다.

■ 미국 경기 회복 가능성 진단

소비 비중이 큰 미국 경제의 특성상 2013년 미국 경제의 향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소비, 부동산 경기, 고용시장, 재정지출 등의 개선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한다. 이들 부문을 점검해 보면, 2013년 미국 경제의 회복세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소비 여건 개선이다. 실질소득이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일인당 실질가처분소득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질 소비지출 증가율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소비자심리지수도 개선되어 향후 소비 증가세가 이어질 것이다. **둘째, 주택시장이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에 진입했다.** 기존주택 재고 감소와 주택 구입 여유지수 개선 등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선행지표인 주택시장지수(HMI)가 6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주택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 또한 신규주택 착공과 허가 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주택 판매 증가 추세도 이어질 것이다. 주택 수요를 나타내는 기존주택 판매도 전년동월대비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다. 공급과 수요 모두 증가하고 있어 주택시장 회복세를 반영하고 있다. **셋째, 고용시장이 개선되었다.** 취업자수 증가 등으로 실업률이 7%대에 머물고 있다. 장기실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실업 기간 감소 등 노동의 이동성이 증가하여 고용 구조 개선이 진행되고 있다. 공급자협회의 고용지수도 상승하고 있어 향후 채용도 늘어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다.** 재정절벽과 관련된 정책의 불확실성은 2012년 경제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 반면, 오바마의 재선은 경제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바마의 재선 이후 재정지출 감소와 과세 계획,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한 '대타협(Grand Bargain)'이 진행되어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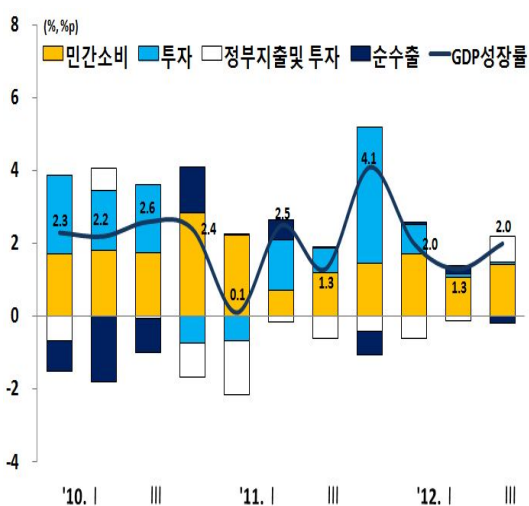
최근 주택 시장과 고용 시장의 회복세는 소비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의 조짐이 보이고 있지만, 재정절벽의 위험 요인 존재로 미국 경제의 회복은 2013년 하반기에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의 회복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지만,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 강화로 인한 통상마찰 등의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 점검하는 직·간접적 통상 마찰과 유동성 증가에 따른 원화 가치 상승과 국내 외환 시장 불안정에도 대비해야 한다.

1. 미국 경제 지표 혼조세 지속

○ 미국 경제는 2012년에도 뚜렷한 경기 추세를 나타내지 못하고 혼조세를 보였음

- 긍정적인 지표 : 산업생산 증가와 소매판매 개선, 7%대의 실업률 유지
 - 2012년 3/4분기 산업생산 증가율이 전기대비 0.4%로 플러스 증가율로 전환
 - 2012년 10월 소매판매는 전기대비 -0.3%로 감소하였지만, 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2012년 9월과 10월 실업률은 각각 7.8%와 7.9%로 고용시장 개선의 기대감 상승
- 부정적인 지표 : 민간투자와 순수출 부진
 - 2012년 3/4분기 민간투자는 GDP 증가율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이 3.5%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2012년 들어 순수출이 GDP 증가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3/4분기에는 마이너스 기여율(-9.0%)로 전환

< 미국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



자료: 미국 상무부

< 실업률, 산업생산 및 소매판매 추이 >



자료: 미국 노동부, 상무부

1) 민간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기준으로 12.3%임

2. 미국 경기 회복 가능성 진단

○ 소비 비중이 큰 미국 경제의 특성상 2013년 미국 경제의 향방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소비, 부동산 경기, 고용시장, 재정지출 등의 개선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함

- 경제 성장 기여도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0%정도로 큰 미국 경제의 특성상 소비 지출 증가와 소비 여건의 개선이 경제 회복의 주요 동력
- 개인 자산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큼. 이러한 주택 경기의 활성화는 미국 소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임
- 실업률은 경기 후행적인 성격을 지닌 지표임. 이러한 실업률 추이는 미국 경기 회복 정도를 가늠하는 기준 지표가 됨
- 특히 2013년 미국 내수 경기 회복 정도는 미국의 재정절벽²⁾ 회피 여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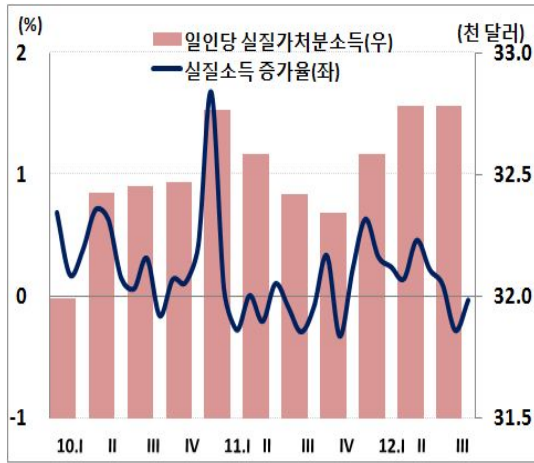
○ (소비 증가 전망) 소득 여건이 개선되는 추세이고 소비 지출이 증가하였으며, 소비자 심리 개선으로 향후 소비도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소득 여건 개선 : 소득 여건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³⁾
 - 일인당 실질가처분소득은 2011년 4/4분기 32,345 달러를 저점으로 증가하여 2012년 3/4분기는 32,779달러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
 - 월별 실질소득 증가율도 2011년에는 대부분 마이너스였지만, 2012년에는 플러스로 돌아섰음
- 소비 지출 증가 : 2012년 3/4분기 실질소비지출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5%p 상승한 2.0%
 - 서비스재 지출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하락하였지만, 내구재 및 비내구재가 중심인 재화 지출 증가율은 전분기에 비해 대폭(4.1%p) 상승한 4.4%
 - 특히, 사용기간이 3년 이상인 내구재 주문 증가율이 9.9% 증가한 것에 힘입어 내구재 지출 증가율 역시 전분기 대비 대폭(8.7%p) 상승한 8.5%
- 소비자 심리 개선 : 향후 경기 회복을 기대하는 소비자 심리가 2012년 3/4분기 들어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음
 - 미시건 소비자심리지수는 2012년 6월부터 급등하여 11월에는 84.9로 2007년 7월 이후 최고치

2)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조시 W. 부시 정부 시절의 감세안 만료와 2013년 1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예상되는 경제 충격을 일컫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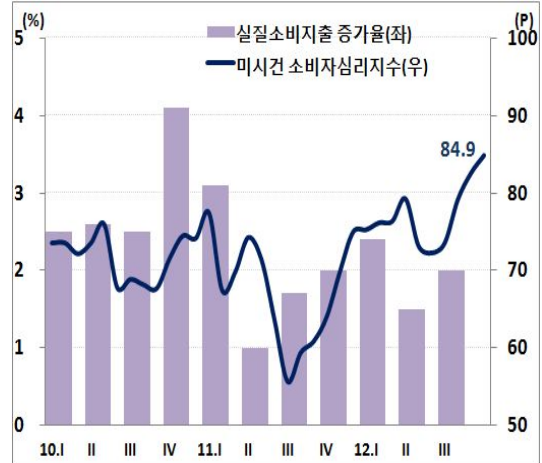
3) 미국의 소비는 소득변동에 약 3~6개월 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과 같은 경기 회복기에는 소득 추세와의 동조성이 매우 강함(한국은행, 2012년 4월, 「미국 소비지출의 지속적 증가 가능성 점검」)

< 실질소득 증가 >



자료: 미국 상무부
주: 계절조정수치

< 소비 지출 증가 및 소비자 심리 개선 >



자료: 미국 상무부, 톰슨데이터/미시간대
주: 계절조정수치

○ (주택 경기 회복) 기존주택 재고의 감소와 주택 구입 여유지수의 개선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고 향후 판매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주택 가격 상승 : 주택 가격은 2012년초를 기점으로 상승세로 전환하여, 8월의 (계절조정)케이스-윌러 주택 가격지수는 1월 136.6 대비 4.5%(6.1p) 상승한 142.7임

·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주택 잔여가치의 증가와 모기지 연체의 감소, 차압된 담보 주택의 매물 출회 감소로 이어지고 다시 주택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는 선순환이 발생함

· 주택시장 가격의 선행지수인 주택시장지수(HMI: Housing Market Index)는 2012년 10월 41로 여전히 기준점인 50 미만에 머물고 있으나 6개월 연속 상승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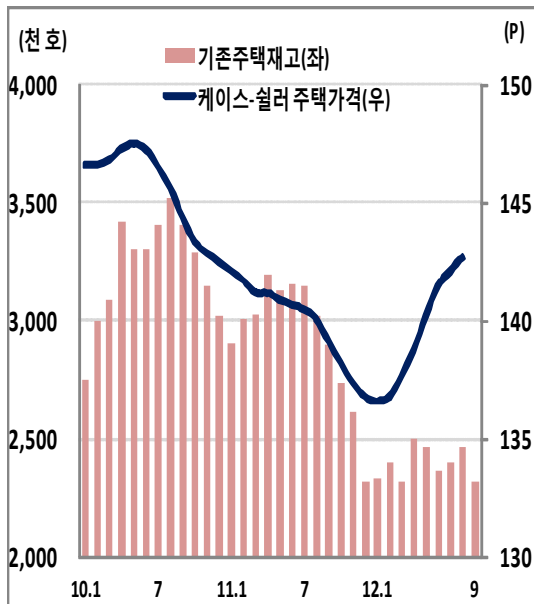
- 주택 가격 상승의 배경 : 기존주택 재고의 감소와 3차 양적완화(QE3)의 시행⁵⁾에 따른 모기지증권(MBS) 매입, 모기지 금리 하락, 주택 구입 여유지수의 개선

4) 주택시장지수(HMI: Housing Market Index)는 미국주택건설업체(NAHB)와 웰스파고(Wells Fargo)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함. 지수가 50 미만이면 주택시장이 6개월 후에 악화될 것이라고 보는 업체들이 많다는 것이고 50 보다 높으면 낙관적으로 보는 업체가 많다는 것이고, 50이면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

5) 연방준비제도(Fed)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2012.9.12~13)에서 향후 매월 400억 달러 규모의 모기지증권(MBS)과 공공기관 채권을 무기한 매입할 것을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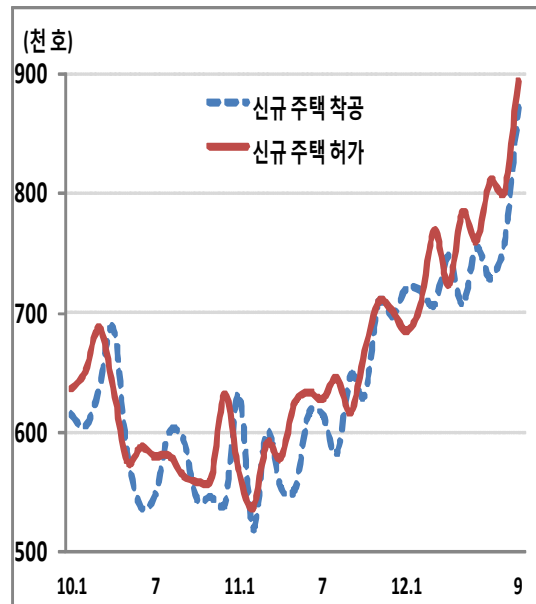
- 차압된 담보주택의 매물출회가 감소하는 등의 이유로 매물로 출회되어 팔리지 않고 있는 기존주택의 재고는 2012년 1월 233만 채에서 4월 250만 채까지는 증가하였지만, 그 후에는 감소하여 9월에는 232만 채를 기록
- 주택 구입 여유지수⁶⁾는 2012년 초반보다 많이 하락하였지만, 6월 이후 3개월 연속 상승세로 9월에는 190.0을 기록
- **주택 판매량 증가 전망** : 주택 공급량의 선행 지표인 신규주택 착공과 허가 건수의 증가로 향후 주택 판매는 증가 추세일 것으로 전망
 - 신규주택 착공 건수는 2011년 2월의 51만 8천 건을 최저점으로 점차 증가하여 2012년 9월 87만 2,000 건을 기록(2011년 2월 대비 68.3% 증가)
 - 신규주택 허가 건수는 2011년 2월의 53만 6,400 건을 최저점으로 점차 증가하여 2012년 9월 89만 4000 건을 기록(2011년 2월 대비 66.8% 증가)
- **기존주택 판매 증가율 플러스 지속** : 한편, 주택 수요를 나타내는 기존주택 판매의 9월 실적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플러스를 지속하고 있음
 - 기존주택판매는 2012년 9월 475만 채로 전년동월 428만 채 대비 11.0% 증가로 7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 지속

<주택가격 상승 및 주택재고량 감소>



자료: S&P. 연방주택금융청

<신규 주택 착공 및 허가 건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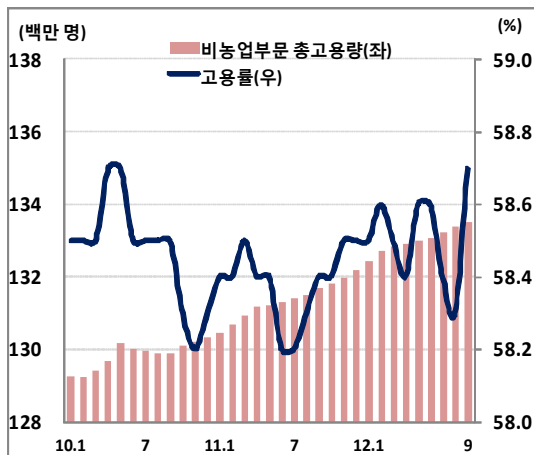
자료: 미국 상무부

6) 전미부동산협회(National Associations of Realtors)에서 발표하는 주택구입여유지수(Housing Affordability Index)는 중위주택가격, 중위가구소득, 평균모기지금리를 반영하는 지수로 높은 수치일수록 가구의 주택 구매 여력은 높은 것으로 해석됨

○ (고용 시장의 구조적 개선 조짐) 재정절벽과 기업 투자 저조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현재 고용 시장은 뚜렷한 개선이 보이지 않지만, 장기실업자 비중이 감소하고 실업 기간이 줄어드는 등 회복세의 조짐이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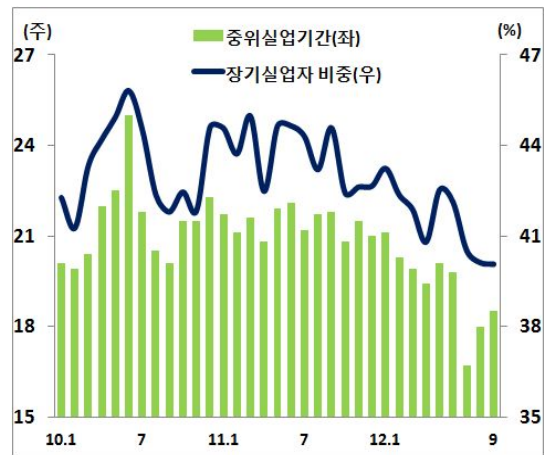
- 취업자수 증가 : 비농업분야 취업자수가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률도 최근에 상승하여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임
 - 2012년 9월 비농업분야 취업자수는 8월 대비 11만 4,000 명 증가하였으며, 주로 의료서비스업(44,000명)과 금융업(13,000명)에서 두드러짐
 -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지표로 해석되는 고용률은 2010년 이후 등락을 거듭하였지만, 2012년 9월 급등하여 58.7%를 기록
- 고용 회복세 지속 가능성 : 장기실업자의 감소와 실업 기간 감소 등 노동의 이동성이 증가하여 경기 회복의 신호로 해석 가능하며 고용 증가세도 지속될 전망
 - 27주 이상 실업상태인 실업자가 전체 실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장기실업자 비중은 2010년 평균 43.3%에서 2012년 평균 41.5%로 1.8%p감소
 - 중위실업기간⁷⁾은 2010년 6월의 25주에서 점차 단축되어 2012년 7월에는 최근들어 가장 짧은 16.7주를 기록하기도 함
 - 2012년 9월 공급자협회의 고용지수⁸⁾는 7월(52.0)과 8월(51.6)보다 상승한 54.7로서 향후 채용이 늘어날 것을 암시함

<고용률 및 비농업부문 고용량>



자료: 미국 노동부
주: 계절조정 수치

< 장기실업자비중 및 중위실업기간 >



자료: 미국 노동부, 공급자협회
주: 1) 계절조정 수치
2) 장기실업은 27주 이상 실업 상태를 일컫음

7) 중위실업기간(Median Duration of Unemployment)은 각 실업자의 실업 기간을 최소 기간부터 차례로 나열했을 때 50%째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미함
8) 공급자협회(ISM: Institute for Supply Management)의 고용지수는 고용 담당자들에게 대한 향후 고용 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성된 지수로 50이하면 채용 감축, 50이상면 채용 확장을 의미함

- (정책의 불확실성 해소) 오바마 재선으로 인해 경제 활성화 정책의 연속성은 확보되었으며, 재정절벽⁹⁾을 피하기 위한 '대타협(grand bargain)' 진행
- 오바마 2기 경제 정책 : 정부역할을 중시하며 재정지출 확대, 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활성화, 에너지 자립도 제고, 클린에너지 개발, 자국 제품 보호 강화를 통한 미국의 수출 증가 등을 통해 경기 회복세에 기여
 -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법인세 인하를 통한 기업 투자 확대, 감세안 연장 등 재정절벽 우려 완화를 통한 민간소비 촉진
 - 사회 기반 시설 투자 증가와 규제 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활성화
 - 에너지 자립도 제고와 클린에너지 개발 등의 성장 동력 확보
 - 규율 중시의 무역과 자유무역 지지 방침으로 미국의 수출입 규모 증가
 - 대타협 :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재정절벽을 피하기 위해 재정지출 감소와 과세 계획, 에너지 부문 등에 대한 타협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¹⁰⁾¹¹⁾
 - 협상 포인트 : ① 부시 감세안 연장; ② 급여소득세 인하 종료; ③ 긴급 실업보험 지급 종료; ④ 재정지출 자동 삭감; ⑤ 연방정부 법정 채무 한도¹²⁾
 - 민주당은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의료부문을 중심으로 한 재정지출 삭감과 국내 화석 연료 생산 등에 동의할 필요가 있음
 - 공화당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부자 증세와 화석 연료 의존도 감소가 국가안보 측면의 최우선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오바마 재선 후 미국 경제 회복 >

분야	미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파급 영향
재정	- 의회와의 공조 → 재정절벽 우려 완화
산업	- 사회 기반 시설 투자 → 일자리 창출 - 규제 완화 → 중소기업활성화
통상	- 무역단속부 신설 → 자국제품보호 - FTA확대 → 신규시장 개척 → 수출시장 확대
에너지	- 에너지 자립도 제고 → 안정적인 원유 공급 확보 - 신재생 에너지 개발 → 중장기적 세계 유가 하락 및 성장 동력 확보

9) 재정절벽(Fiscal Cliff)이란, 조시 W. 부시 정부 시절의 감세안 만료와 2013년 1월1일부터 자동적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예산 삭감으로 예상되는 경제 충격을 일컬음
 10) Jennifer Rubin. (2012.11.7). 'Boehner Proposes a Grand Bargain, Again'. The Washington Post.
 Bart Stupak. (2012.11.4). 'Grand Bargain Requirement'. Politico.
 11) 다만, 미국 정부의 부채한도 소진이 다가오며 감세 등 부양정책은 2012년말 종료되는 반면, 사실상 11월 셋째 주부터 시작되는 현의회의 마지막 회기는 레임덕 기간으로 돌입하여 협상을 위한 시간이 충분하지 않음
 12) 연방정부 채무는 2012년 10월 31일 현재 16조 2,615억 달러로 법정 상한선인 16조 3,940억 달러에 근접

<첨부> 미국 경제와 재정절벽

- 재정절벽에 따른 경제적 충격은 크게 감세 종료와 재정지출 축소이며, 이에 따른 2012~2013년 회계연도(fiscal year) 재정적자 감축 규모는 총 5,600억 달러에 달함
 - 재정절벽 내용 : 감세 종료(3,990억 달러), 재정지출의 삭감(1,030억 달러) 등 총 5,600억 달러
- 미국은 현재 재정적자 축소와 경기회복이라는 상반된 목표 사이의 딜레마에 직면
 - 재정절벽 현실화 : 단기적인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지만, 재정긴축을 통해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2013년 경제성장률은 -0.5%까지 급락
 - 2013년 재정적자는 6,410억 달러로 2012년 대비 4,870억 달러 감소하고 2013~2017년까지의 총재정적자 규모는 1조 5,490억 달러임
 - 재정절벽 회피¹³⁾ : 단기적으로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정적자 문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부정적
 - 여야 합의로 재정절벽을 회피할 경우, 2013년 경제성장률은 1.7% 예상
 - 2013년 재정적자는 1조 370억 달러이며, 2013~17년까지의 총재정적자 규모는 4조 4,370억 달러임

< 2013년 예정된 주요 재정 감축 조치 >

구분	내용	금액 (억 달러)
감세 종료	부시 감세안 연장 종료	2,210
	근로자 급여소득세 인하 종료	950
	투자세액 공제 종료	650
	의료보험 제도 개혁에 따른 증세	180
	합 계	3,990
재정 지출 삭감	자동세출 감소	650
	긴급실업보험 연장조치 종료	260
	의료보험 진료수가 축소	110
	합 계	1,030
기타		1,050
경제피드백효과		-470
	총 합	5,600

< 재정절벽의 영향 >

구분	재정절벽 현실화	재정절벽 회피
경제성장률 (2013년)	-0.5%	1.7%
실업률 (2013년)	9.1%	8.0%
재정 적자	2013년	1조 370억 달러
	2013 ~2017년	4조 4,370억 달러

자료: 미국 예산정책처(2012).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0
 주: 재정지출삭감 중 통계상불일치(10억달러)

자료: 미국 예산정책처(2012).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Fiscal Years 2012 to 2020

13) 미국 예산정책처는 급여세를 제외한 모든 세금 인하 조치가 연장되고 재정지출의 자동 삭감이 시행되지 않는 수준에서 정치적 타협을 통해 재정절벽을 회피하는 대안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전망

3. 시사점

- 소비, 주택 경기, 고용, 그리고 정책 등 경제 선순환 조짐이 보여 2013년 하반기부터 미국 경제 회복은 보다 가시화될 전망
 - 경제 선순환 : 미국 주택 시장과 고용 시장의 회복세, 그에 따른 소비 증가의 경제 선순환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향후 미국 경제는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가계소비 지출 증가는 기업의 판매 증가와 생산 확대, 고용 창출로 연결되어 미국 경제 회복에 청신호
 - 주택 시장 활성화 및 주택 가격 상승은 가계의 '부의 효과(wealth effect)' 확대에 기여
- 미국의 경기 회복은 세계 경제 및 국내 경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임. 단, 미국 경제 회복 과정에서 자국 산업 보호주의가 나타남에 따른 통상마찰과 양적완화 기조 유지에 따른 통화갈등 등에 대한 대비도 필요함
 - 대미 수출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 기존 한·미FTA에 더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추진하는 등, 아·태지역에서 강화되는 미국의 영향력에 대응
 - 아·태 국가들에 대한 경제협력과 중국의 영향력 확대 견제 차원에서 진행이 예상되는 TPP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정립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일본과 중국 등 인접국들의 TPP참여 여부와 FTA 체결 흐름과 병행하여 우리나라의 참여 여부와 전략을 수립
 - 직·간접적 통상마찰 대비 : '아시아로의 중심축 이동(Pivot to Asia)'을 표방하며 중국 및 아시아 시장에 대한 영향력 행사 확대에 대비
 - 반덤핑관세 부과나 소비자 고발 등의 직·간접적 통상 무역 분쟁에 대비하여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정보 공유 등의 대응 체계를 구축
 - 확대 가능성이 있는 미·중 간 통상압력으로 對중국 수출 기업과 중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에 대한 대응책 마련
 - 외환시장 안정화 : 양적완화 기조 유지에 따른 원화 가치 절상 및 급격한 환율 변동성 확대를 대비하고 금융시장 안정화 유도
 - 연준의 버냉키 의장은 실업률 하락과 미국 경기 회복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양적완화 정책을 지속할 것을 시사하여 우리 기업 수출제품의 가격 경쟁력 악화가 우려됨
 -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지속과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거래세 도입 등을 검토

경제연구본부 홍준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임희정 연구위원 (2072-6218, limhj9@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0년					2011					2012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3.0	3.9	3.7	2.5	2.3	1.7	0.4	1.3	1.8	3.0	2.2
유로 지역	1.9	0.4	1.0	0.4	0.3	1.4	0.8	0.2	0.1	-0.3	-0.4
일본	4.4	6.1	5.2	2.3	-0.6	-0.9	-6.8	-1.5	7.0	-2.3	2.2
중국	10.3	11.9	11.1	10.6	9.8	9.2	9.7	9.5	9.1	8.9	7.8

주: 1) 2012년 전망치는 IMF 2012년 10월 기준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1월 9일	11월 15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30	3.16	1.88	1.61	1.59	-0.02%p
	엔/달러	81.19	80.66	77.66	79.49	80.18	0.69¥
	달러/유로	1.3350	1.4492	1.2955	1.2743	1.2736	-0.0007\$
	다우존스지수(p)	11,578	12,414	12,218	12,815	12,542	-273p
	닛케이지수(p)	10,229	9,817	8,455	8,758	8,830	72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8	3.76	3.34	2.79	2.78	-0.01%p
	원/달러(원)	1,134.8	1,067.7	1,151.8	1,087.6	1,086.7	-0.9원
	코스피지수(p)	2,051.0	2,100.7	1,825.7	1,904.4	1,870.7	-33.7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0년말	2011년		2012년			
		6월말	12월말	11월 9일	11월 15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1.40	95.18	99.22	86.05	85.34	-0.71\$
	Dubai	88.80	106.75	104.89	104.81	107.32	2.51\$
CRB선물지수	332.80	338.05	305.30	292.22	292.84	0.62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E)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5	3.5	
	민간소비 (%)	2.9	1.6	2.3	1.3	2.9	
	건설투자 (%)	-7.1	-3.0	-5.0	-0.2	2.5	
	설비투자 (%)	8.9	-1.1	3.7	1.6	5.6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310	260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263	268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5,488	6,026
		(증가율, %)	23.6	14.9	19.0	-1.2	9.8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5,225	5,758
		(증가율, %)	26.7	20.2	23.3	-0.4	10.2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4	2.6	
실업률 (평균, %)		3.8	3.0	3.4	3.3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25	1,09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